

- 해양탐사 -

해양문화재의 조사와 보존

문화재연구소
목포해양유물보존처리소
소장 이 창 근

차례

1. 머리말
2. 수중고고학
3. 해양문화재의 조사연구
 - 가. 신안해저문화재 발굴조사
 - 나. 완도해저문화재 발굴조사
 - 다. 진도 벽파통나무배 발굴조사
4. 발굴고선의 선체 구조
5. 해양유물의 과학적 보존연구
6. 맺는말

성과와 그 보존에 관한 문제를 개략적으로 정리, 소개해 보고자 한다.

2. 수중고고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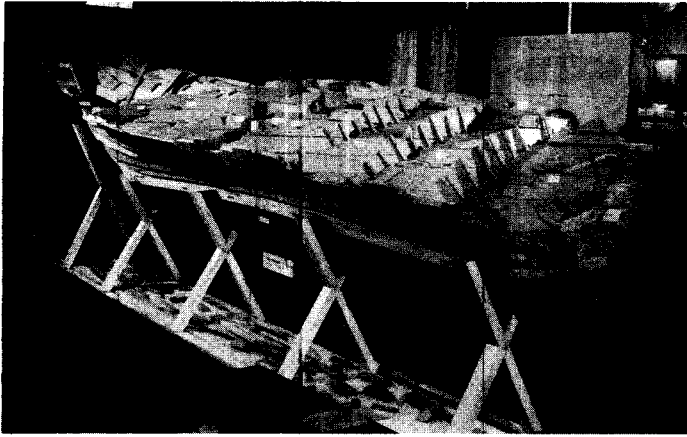
수중(해양)고고학이란, 바다, 강, 조수등지에 가라앉아있는 고대유적이나 유물등을 발굴하여 당시의 문화상을 복원하고자 하는 고고학의 한 분야이다. 이들 유적지나 유물들이 수몰되어 있는 이유로는 고대 유적지가 지각변동에 의해 물속에 가라앉았다거나 선박이 항해 중 또는 교전 중에 침몰했다든가 하는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2/3는 바다이며 1/3인 육지마저도 강이나 조수 등이 가로막고 있는 지리적 환경때문에 인류는 아주 오랜 역사를 통하여 넓고 험악한 바다

1. 머리말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리적, 역사적, 여건때문에 바다와는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으며 또한 훌륭한 해양사적 전통을 지니고 있다. 신안해저문화재발굴조사는 한국고고학사상 해양발굴이라는 수중고고학의 새 장을 열게 하였으며, 수많은 유물을 인양해냄으로서

국민적 관심과 역사인식을 새롭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바다는 미래 우리들의 생존이 걸려 있는 '자원의 보고'로서 그 개발에 대한 기대 못지 않게, 과거 우리 조상들의 역사적 흔적들이 잠들어 있는 '역사의 보고'로서 우리들이 갖는 관심 또한 점증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해양문화재의 발굴조사



신안선 1/5 축소 모형

와 육지의 조수나 강과도 싸우는 한편, 이를 극복하고 적절히 이용함으로써 환경을 개발하고 개척해 왔다. 바다와 강, 조수 등의 내수면은 인간생활에 지장을 주는 장애 요소로 간과되기도 했으나 이용 능력에 따라서는 훌륭한 수송로로서 또는 양식 채집장으로서 이용 여부에 따라 이용가치가 증대되었다. 고고학적 근거에 의하면 B.C.40,000년 이전에 이미 인간이 동남아시아로부터 오스트레리아까지 80~100km에 이르는 긴 수로를 건너간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B.C. 17,000년경 부터는 지중해의 깊은 바다에서 고기잡이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도 있다(주 1). 한반도에서도 일찌기 바다나 내수를 이동의 수단, 생활터전으로 이용했던 사실들을 몇몇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청동기시대

이전의 것으로 보이는 경남 울주군 대곡리의 반구대암각화(磐龜臺岩刻畵)와 두동면 천전리의 청동기시대 암각화에서도 어로작업을 하는 선각(線刻)의 배 그림이 나타난다.

수중의 고미술품과 유물에 대한 관심과 인양의 시도는 19세기경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최초로 1775년 영국의 골동품 수집가들이 로마 근처의 Tiber강에서 유물을 발굴토록 그리이스 잠수부들을 고용하여 3년간 작업하였지만 잠수부들의 기량과 퇴적된 강바닥의 빨을 제거할 만한 기술이 없어 큰 성과를 얻지 못했다. 따라서 수중고고학적 활동, 특히 난파선에 대한 수중발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차 세계대전이후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Roskilde 해협의 Viking선 발굴(1959, 덴마크), 청동기시대 난파선

의 발굴(1960, 터어키), 16세기 Wasa 전함의 발굴(1961, 스웨덴), 그리이스 시대 상선의 발굴(1968, 그리이스), 16세기 Mary Rose 전함의 발굴(1982, 영국) 등 세계 곳곳에서 해저 문화재에 대한 탐사와 발굴이 의욕적으로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해양문화재의 조사연구

가. 신안해저문화재 발굴조사

신안해저문화재 발굴조사는 전남 신안군 지도읍 방축리 도덕도 앞바다로 임자도와 증도에서 각각 4k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실시되었다. 구전에 의하면 이곳에 큰 배가 침몰했었다는 전설이 있었던 곳이다. 1975년 8월 20일 이 해역에서 어로작업을 하던 어부들이 그물에 우연히 걸린 청자화병 등 6점의 유물이 발견됨에 따라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문화재관리국은 현지 조사결과에 따라 1976년부터 1984년까지 9년동안 신안해저문화재 발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당시 우리나라 고고학계로서는 수중발굴에 관한 경험이 전혀 없었고, 더구나 발굴해역이 조석간만의 차가 심하고 해양환경의 변화가 많은 위험한 곳이므로 우수한 잠수요원을 보유한 해군

표 1 신안해저 인양유물의 종류와 수량

| 도 자 기 류 | | | | | 금속류 | 석재류 | 기 타 | 동 전 | 자단목 | 선체편 |
|---------|-------|-----|-------|-----|-----|-----|-----|-------|-------|-----|
| 청 자 | 백 자 | 黑 釉 | 雜 釉 | 白濁釉 | | | | | | |
| 12,377 | 5,311 | 509 | 2,306 | 188 | 729 | 45 | 575 | 28 | 1,017 | 720 |
| 20,691 | | | | | (점) | (점) | (점) | (ton) | (본) | (편) |

의 협조를 받아야만 했다.

해양환경 조사에 의한 평균수심은 20m 정도이며 해수의 이동은 밀물 때에는 북동쪽으로 흐르고 썰물 때에는 남서쪽으로 흐르는 왕복성 조류의 특성을 지닌 곳이다. Side Scan Sonar 탐사에 의하면 침몰선의 위치는 북위 35°01'15", 동경 126°05'06"이며 침몰선은 조류의 방향과 거의 직각인 북서방향(323°)으로 머리를 둔 채 매몰되어 있었다. 유속은 평균 2.5knots로 사리때에는 3.5knots, 조끔때에는 1.5knots 정도를 나타낸다(주 2). 그러나 수심과 유속보다 발굴을 어렵게 한 것은 수중시계의 문제였다. 빨과 같은 부유물의 양이 많아 태양광선의 침투뿐만 아니라 인공광선에 의한 투과도 역시 매우 낮아 육안 식별은 물론 광학기기에 의한 촬영도 불가능하였다.

발굴의 절차는 먼저 선내와 주변에 산재한 선적물을 발굴한 후 선체를 인양하기로 하였다. 선적물 발굴에서는 도자기를 비롯한 많은 유물들이 인양되었는데 그 중

류의 다양함과 막대한 양의 유물은 우리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인양유물의 내용은 <표 1>과 같다(주 3).

신안해저 인양유물 중 도자기는 20,691점에 달하는 수량이 인양되었지만, 7점의 고려청자와 2점의 일본 겸창(鎌倉)시대 회유병자(灰釉瓶子)를 제외하고는 송, 원대의 중국 도자가 주종을 이룬다. 그러나 서기 1320년대를 출현시기로 보고 있는 청화백자는 인양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주 4). 또한 인양된 동전은 화천(신국기 : AD 14년), 오수전(후한기 : AD 25~219)으로 부터 지대통보(원 : AD 1310)에 이르기까지 66종으로 분류되는데 지대통보의 주조년대인 1310년은 신안 침몰선의 상한년대를 제시해 준다(주 5). 이 외에도 촛대, 동경, 주방용기 등의 금속제 유물도 인양되었는데, 특히 "경원로"라는 명문이 양각되어 있는 청동제 저울추가 인양됨으로써 신안선의 출항지를 짐작하게 해주는 귀중한 단서가 된다(주

6). 경원은 원대의 지명으로 명대 이후에는 영파(寧波)라 불리우고 있는 당시의 주요 무역항이었다.

목재유물로는 목재 보살상, 저울대, 칠기와 함께 그릇을 포장했던 목상자와 물표에 해당하는 목간이 다량으로 인양되어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준다. "동복사"명의 목간을 통해서 이 배의 항해목표지를 짐작할 수 있고 특히 "지치(至治)3년 ○월 ○일"의 목간은 신안선의 출항시기를 추정할 수 있게 하는 결정적 증거이다(주 7). 지치는 원나라 영종의 연호이며, 지치삼년은 고려 충숙왕 10년 서기 1323년에 해당된다. 이밖에도 자단목을 비롯한 남방계통의 수목과 약용열매 등이 많이 인양되어 당시의 교역내용, 교역의 범위 등 문물 교역사 연구에 중요한 종합적 문화사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선체의 인양계획 수립을 위한 1979년의 상태조사에서 선체의 길이는 28.4m, 폭 6.6m이며, 우현쪽으로 15°정도 기울어진 채 매몰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주 8). 선체 인양방법으로는 (1) 바사(WASA)호처럼 전체로 인양하는 방법, (2) 코퍼댐(Coffer dam)을 만들어 배수하고 발굴하는 방법, (3) 메리로스(MARY ROSE)호처럼 선체를 보강하고 인

양하는 방법, (4) 부분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하여 (Piece by piece) 인양하는 방법 등이 제안된 바 있으나 모두 난점과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국내의 여건과 장비 등을 고려한 결과, 부분적으로 해체, 절단하여 인양하기로 하였다. 신안선의 선체 구조재 및 포판재(包板材)는 720편으로 해체 인양되었다.

신안해저 문화재 발굴조사의 의의는 여러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 고고학 사상 처음 시도된 수중발굴로서 한국 수중고고학의 시발이 되었으며, 수중 발굴 사상 최악이라는 악조건을 극복한 쾌거라 할 수 있다.

나. 완도해저문화재 발굴조사

신안해저 발굴이 막바지에 접어든 1983년 12월 전남 완도군 약산면 어두리섬 해

표 2 완도해저 인양유물의 종류와 수량(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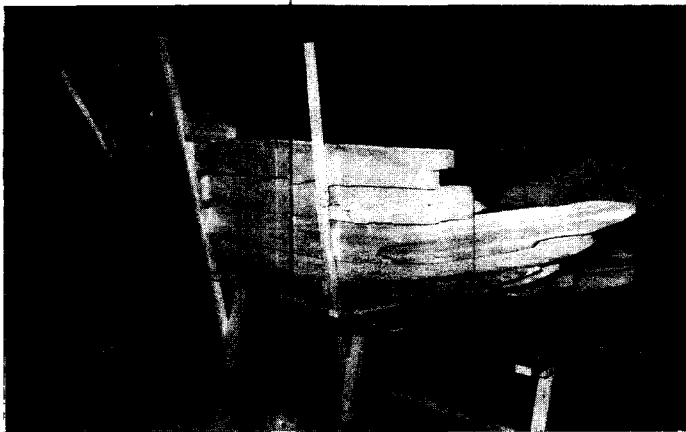
| 청자기 | 잡유류 | 토기류 | 금속류 | 석재류 | 목재류 | 선체편 |
|--------|-----|-----|-----|-----|-----|-------|
| 30,646 | 25 | 2 | 18 | 1 | 9 | 81(편) |

저에서 키조개 채취작업을 하던 어부에 의하여 4점의 청자가 인양됨으로서 완도해저유물에 대한 학술적인 탐사작업이 시작되었다. 문화재관리국은 조사원을 급파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1983~1984까지 2차에 걸쳐 수중발굴을 실시하게 되었다. 조사해역은 완도군청 소재지인 완도읍으로부터 동북방 8.7km에 위치한 조약도의 동쪽 끝에 있는 어두리 부락 앞 약 300m 해상의 무인도인 어두리섬의 동북 돌출지점에서 72m 떨어진 동경 126°57'27", 북위 34°24'40"에 위치한 곳이다. 조사해역의 수심은 12~15m 이고 표층류의 유속은 2~

3knots 정도로 급류는 아니었으나 수중시계는 한달에 두 번 정도 정조시에 1.2m에 이를 뿐 시계가 전혀 없는 상태였다(주 9).

이미 신안해저 발굴조사 작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과 경험을 토대로 조사단에 의하여 인양된 완도해저유물은 한 척의 고려시대 침몰선과 약간의 금속 및 석제품 그리고 30,700여점의 막대한 양의 고려시대 도자기들이었다. 신안해저 유물이 대부분 중국 제품이었던 것에 비하여 완도해저 인양유물은 고려시대의 우리나라 제품들이었으며 그동안 발견되었던 대부분의 도자기들이 고려고분에서 출토된 명기적 성격의 유물이었던 점에 비추어 대접, 접시로 대표되는 당시의 생활 도자기라는 측면에 의미가 있다(주 10). 완도해저 인양유물의 내용은 표 2와 같다.

완도해저 인양유물에서는 신안해저 인양유물에서 처럼 출항지나 매몰년대 등을 알려주는 명문과 같은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수 많은 도자기의 형식학적 분류에 의하여 상대적 편년(編年)을 얻을 수 있었다. 우연하게도



완도선 1/2 축소 모형

완도해저발굴과 같은 시기인 1983년 봄에 발굴 조사된 해남군 산이면 진산리 일대의 고려시대 요지군이 완도해저 인양 도자기들을 제작하였던 곳으로 밝혀져 이들 도자기의 제작장소, 제작시기, 항로 등을 이해하는데 폭넓은 정보들을 제공해 주었다. 즉, 완도해저 인양 도자기들은 진산리 일대 가마에서 생활용 도자기로 제작되었으며, 고려도자기에 관한 새로운 전환기인 11세기 중·후반기경 문종년간(서기 1047~1082)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주 11).

다. 진도 벽파 통나무배 발굴조사

(1) 조사경위

1987년 12월 '삼별초 현장을 가다'라는 답사 기행문 중 벽파리 매물선에 관한 언급이 있었고, 현지 주민들에 의하여 통배로 구전되어 온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남 진도군 고군면 벽파리 676-2 구거지 현지답사 및 시굴('91년)한 결과, 초대형 통나무배로 확인, 선사연구에 중요한 선형으로 밝혀져 목포해저유물보존처리소에서 1992. 5. 18~6. 30까지 발굴하게 되었다.

(2) 조사지역의 특성

진도군 고군면 벽파리는 진도대교가 개통되기 이전까지 진도의 관문이었으며, 역

사적으로는 삼별초가 웅거하던 용장산성이 벽파 망금산을 중심으로 병풍처럼 둘러져 있고 벽파진 앞바다는 삼별초가 처절한 해상항전을 벌였던 곳이다. 정유재란시에는 이충무공의 노량대첩으로 유명한 울돌목과 바로 이웃하고 있는 지리,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는 곳이다.

(3) 조사전 상태

진도 벽파 통나무배의 매물상태는 1970년대 벽파 방조제 축조후, 수로의 바닥층이 점차 알아짐에 따라 1980년대 초부터 통나무배 유구의 일부가 노출되기 시작하였다. 유구는 동서를 축으로 하여 약 8m정도가 10~30cm 높이로 노출되었고 매물지점은 갯벌흙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4) 조사결과

(가) 매물선의 규모

매물선을 발굴한 결과 잔존 최대길이가 16.85m, 폭 2.34m, 형심 0.75m로 실제로 본 통나무배는 길이 20m 전후의 초대형 통나무배로 추정된다. 섬세한 제원은 표 3과 같다.

(나) 통나무배의 구조
선체는 하나의 대형 목재를 U자형으로 파낸 형식이며, 본체와 선수부를 연결한 구조가 확인되었는데 선수부 역시 한 재의 통나무로 되어 있다.

1) 격벽 및 장좌

가) 장좌(돛대받침) : 장좌 구조물은 1기가 확인되었으며 평탄한 상부에는 2개의 장각공(檣脚孔)이 있고, 하부에는 선체 동주(胴周)에 맞도록 U자형으로 가공되어 있으며 최저부에는 △형상의 오수공이 시설되어 있다.

나) 격벽 : 격벽은 본체부에 6개소, 선수부에 1개소가 설치되었던 흔적이 관찰되며, 돛대받침 전면에 완형의 격벽 1기가 잔존하며, 하부에는 돛대받침과 같은 오수공이 시설되어 있음.

2) 익재 : 선체 좌현측

에 방현 및 방파 그리고 협소하고 긴 배의 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한 기능의 익재가 부가 설치되어 있다.

(다) 수습물

발굴조사 과정에서 수습된 유물은 청자편, 도자기편 등

표 3 진도 벽파 통나무배의 제원

| 구 분 | 제 원 | 위 치 | 비 고 |
|--------|-----------|------|-------------------------|
| 잔존최대길이 | 16.85m | | * 본체길이:13.6m, 선수부:3.25m |
| 잔존 최대폭 | 외 경 2.34m | 본체전단 | |
| | 내 경 2.06m | " | |
| 형 심 | 0.75m | | * 선재 두께:10~15cm |

표 4 신안선, 완도선과 진도 벽파 통나무배의 비교

| 구 분 | 신 안 선 | 완 도 선 | 진도 벽파 통나무배 |
|-------|-------------------------------|----------------------------|---------------------|
| 선 적 국 | 중국 원대(14세기) | 고려(11세기) | 조사중 |
| 선 종 | 항양선(복선형) | 연안선(한선) | 대형 통나무배 |
| 선 형 | 침저형(방형용골 채용) | 평저형(5재의 두터운 저판재) | 선체와 선수부를 연결한 통나무배 |
| 횡강도재 | 격벽 사용 | 가용목으로 양현 고정 | 격벽 사용 |
| 외판접합 | 홈붙이 클링커식(하연절결:下緣切缺) | 홈붙이 클링커식(상연절결) | 한 재의 통나무(양현에 익재 시설) |
| 선수형태 | 역삼각형의 평판형 선수가 용골의 가선 수재와 결합됨. | 역사다리꼴 형상의 평판 선수와 저판재가 직결됨. | 원목을 원형으로 가구(架構)함. |
| 선미형태 | 트랜섬형 선미 | 트랜섬형 선미 | |
| 범 주 | 최소한 2주이상의 다범선 | 단범선으로 추정 | 선중앙에 장좌 1기 |
| 충해방지 | 선체외면에 포판재 부착 | 연화법 사용 흔적 | 연화흔적 |
| 고착방법 | 철못 사용 | 나무못 사용 | 철못 사용 |
| 벃밥사용 | 박실과 동유회 사용 | 없음 | 동유회 사용 |
| 주 선 재 | 마모송 | 육송 | 장목 |

표 5 신안선, 완도선과 진도 벽파 통나무배의 복원 추정 척도

| 구 분 | 신 안 선 | 완 도 선 | 진도 벽파 통나무배 |
|-----|----------|---------|--------------|
| 전장 | 약 32m | 약 9m | 약 20m |
| 폭 | 약 11m | 약 3.5m | 약 2.34m |
| 형심 | 3.5~4m | 1.7~2m | 0.75m |
| 톤수 | 약 200ton | 약 10ton | 잔존 자중 약 8ton |

70여편이 선체 외부의 깃별층에서 수습되어 선체와의 관계 등 많은 연구과제로 주목된다.

4. 발굴고선의 선체 구조

신안, 완도와 진도 벽파

발굴의 백미는 그 자료가 희귀하고 독특한 형태의 구조를 갖춘 고선박의 발굴인양이라 해도 크게 지나침이 없을 듯 하다. 세계 문화교류사에 있어서 동서간의 육상을 통한 왕성한 교류는 “Silk Road”로 지칭되었으나 그에

못지 않게 해상을 통한 무역과 교류 역시 활발하여 “도자지로(陶磁之路)”로 표현되었다. 유럽의 경우 많은 고고학적 발굴을 통하여 선박사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으나 동양권에서는 고선박의 발굴사례가 거의 없어 고대 해양문명사 정립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신안·완도선 및 진도 벽파 통나무배 발굴인양을 통하여 통나무배에서부터 고도로 발달한 신안선에 이르는 중국의 조선기술과 완도에서 인양된 완도선은 거북선, 판옥전선으로 이어지는 한선(韓船)의 발달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발굴 인양된 것이다. 본 발굴에서 인양된 선박은 중국선과 한선, 항양선(航洋船)과 연안선이라는 대비 외에도 구조적으로 원시적인 통나무배에서부터 발달된 구조선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어 선박사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많아 매우 흥미롭다. 신안선, 완도선과 진도 벽파 통나무배의 구조적 비교를 표 4에 정리해 보았다.

5. 해양유물의 과학적 보존 연구

보존과학이란 “문화재의 보존과 복원을 위한 과학”이라 정의한다. 인류의 문화유산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

르며, 또한 미래를 연결시켜 주는 매개체라 사료된다. 이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문화유산의 중국적 상속자가 아니라 과도적 관리자의 입장에서 다음 세대에 전하여야 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문화재는 그 종류와 자질, 주변환경,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여러가지 노화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여러 분야에 걸쳐 문화재의 적절한 보존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데, 이같은 필요성에 따라 물리, 화학, 생물 등과 같은 기초과학과 고고학, 미술사학, 금속학, 동식물학, 목재학, 공학 등의 여러 분야가 관련된 종합적 학문으로서 문화재 보존과학이라는 분야의 학문이 탄생한 것이다. 문화재 보존과학의 주된 관심 연구대상은 다음과 같다.

- 1) 문화재의 재질, 기법에 관한 연구
- 2) 유물구조에 관한 연구
- 3) 보존환경에 관한 연구
- 4) 보존, 수리처리에 관한 연구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주 12).

보존과학적의 관점에서는 신안해저 인양선과 같이 바다나, 호수 등지에서 출토되는 목재 문화재를 수침목재 유물로 분류하며, 이는 보존과학자에게는 대단히 어려운 처리대상물이다. 이들 수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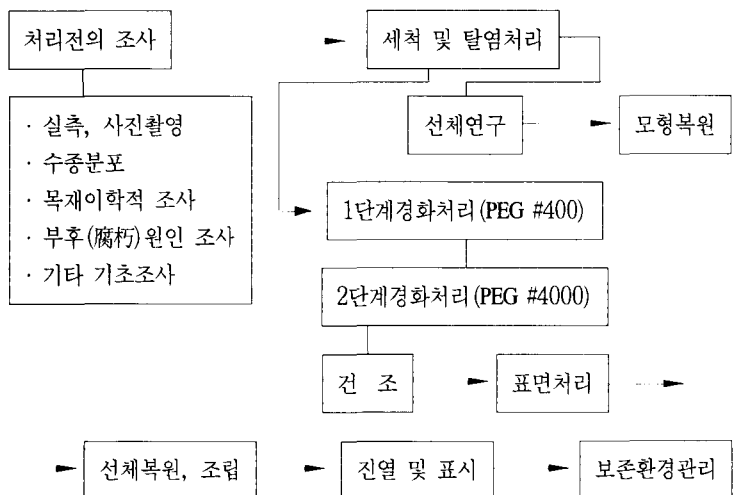
목재 유물은 육안으로 볼 때 재질이 비교적 단단해 보이지만 대기중에 노출될 경우 대부분은 원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큰 변형과 수축을 가져온다. 이는 목재가 해수나 조수 등에 오랫동안 침몰되어 있는 수침과정에서 박테리아나 미생물에 의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또한 목재의 주성분인 Cellulose 등이 유실되어 기계적 강도가 크게 저하된 상태이지만 Cellulose 등 목재 주성분이 유실된 공간을 해수나 물이 채워져 있어 형태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수침목재의 보존처리란 목재의 강도를 보강해주고, 변형을 방지하여 원형을 간직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처리방법으로는 자연건조법, 수지함침법, 진공동결건조법 등 많은 처리

방법이 있으나 신안해저 인양선의 경우 2단계 PEG 처리법을 채택하여 처리하고 있다. PEG 처리의 원리는 안정화 합성물질인 PEG용액을 수침목재의 미세한 조직 내부로 깊숙히 침투시켜 목재내부의 물과 치환시키며, 침투된 합성물이 세포벽에 강하게 부착되면서 물이 담당하고 있던 기능을 대신하고 목재내에 남아서 경도를 강화시켜 주는 작용을 하게 된다(주 13). 특히 신안선과 같은 대형재 유물의 보존처리에 적합한 방법으로서 스웨덴의 Wasa전함, 덴마크의 Viking선, 독일의 Bremen Cog선, 영국의 Mary Rose전함의 보존에도 PEG처리법이 채택되었다.

신안, 완도선 및 진도 벽파 통나무배는 아래와 같은

보존 처리 공정



보존처리 공정을 거쳐 복원된다.

6. 맺는말

신안해저문화재 발굴조사는 우리나라 고고학 사상 처음 시도된 수중발굴로서 세계의 수중발굴사에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발굴환경에서 성과를 올린 수중고고학의 쾌거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발굴조사를 통하여 수 많은 유물을 인양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실증적 현존자료가 거의 없던시피한 고대 동양의 대형 실선을 보유하게 되었다.

또한 완도해저문화재 발굴조사에서는 수 많은 고려시대 도자기들을 인양하므로써

한국 도자사(陶磁史)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완도선의 발굴은 우리나라 전통한선의 발달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고, 진도 벽파 통나무배는 선사연구에 매우 희귀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신안, 완도선과 진도 벽파 통나무배는 현재 목포해양유물보존처리소에서 장기 보존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보존처리되고 있으며 멀지 않은 장래에 완공될 신안해저유물전시관(가칭)에서 진열 전시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 싸인 지리적 여건때문에 옛부터 바다는 중요한 생활영역으로 삶의 역사 현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

리나라 서해안, 남해안 일대에는 많은 역사적 사실들이 묻혀 있을 가능성을 지닌 곳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까지 180여개소에 달하는 해양유물 출토 신고지점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우리는 훌륭한 해양역사의 전통을 지니고 있으므로 장보고 시절의 고선이 어느 해역엔가 아직 잔존해 있을지 모르며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이충무공의 거북선이 어느 해역엔가 잘 보존되어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는 한반도 주변해역에 대한 역사적 탐사를 실시하여 우리의 옛 문화를 찾아내고 보존, 계승하는 노력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 <주> (1) S.McGrail, 1983, 『Ancient Boat』 Shirepublication
 (2) 한상복, 1980, 『해양환경 조사연구』, 문화재관리국
 (3) 한상복, 1988, 『신안해저유물 종합편』, 문화재관리국
 (4) 주(3)의 304~318pp 및 541pp 참조
 (5) 이창근 외, 1987, 『신안동전 성분분석에 관한 연구』, 보존과학연구 제7집 39~72pp, 문화재연구소
 (6) 주(3)의 541pp 참조
 (7) 주(3)의 253~260pp 참조
 (8) 김재근 외, 1980, 『침몰선체에 대한 학술조사연구』, 문화재관리국
 (9) 김재근 외, 1985, 『완도해저유물』, 문화재관리국
 (10) 주(9)의 45~102pp 참조
 (11) 주(10) 참조
 (12) 최광남, 1991,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 대원사
 (13) J. de Jong, 1979, 『The Conservatio of Shipwrecks by Impregnation with Polyethylene Glycol』, 『Conservation of Waterlogged Wood』, 57~67pp, Netherlands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